Fund Analyst 김후정
02-3770-3605 / hujung.kim@yuantakorea.com

갈 길 바쁜 사회책임투자(요약)

1. 사회책임투자는 유럽과 미국이 중심

- 사회책임투자는 1970년대 무기·담배·도박 등 '죄악주' 종목에 대한 투자 배제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 db럽 연기금을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 본격화
- 사회책임투자는 유럽에서 미국, 호주를 거쳐 아시아로 확대
- 유럽은 상대적으로 규범이나 배제 요건에 따른 선별에 의한 전략에서의 비중이 높고, 미국은 ESG 통합투자전략의 비중이 높음

2. 해외의 사회책임투자 방식은 다양

- 사회책임투자자산 중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7%에서 2016년 74%로 낮아짐
- 해외에서 리테일에 팔리는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주식펀드, 혼합펀드, 채권펀드 등으로 다양

3. 쪼그라든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

- 2007~2008년 2조원을 넘어섰던 공모형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용규모는 2천억원대로 줄어듬.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국내주식형 2623억원, 해외주식형 463억원이 운용
- 사회책임투자 전용 벤치마크를 도입하려는 대형 기관 증가 추세.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투자 안프라가 개선되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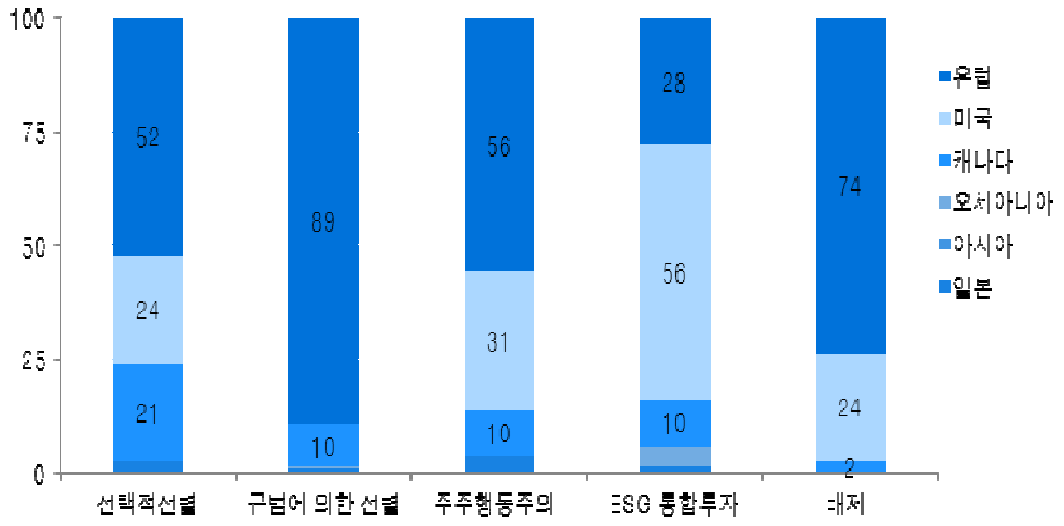
1. 사회책임투자는 유럽과 미국이 중심

사회책임투자는 1970년대 무기·담배·도박 등 '죄악주' 종목에 대한 투자 배제로부터 시작되어 환경과 기업 지배구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공적 펀드의 공공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며, 유럽 연기금을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가 본격화되었다. 사회책임투자는 유럽에서 미국, 호주를 거쳐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회책임투자 전략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규범이나 배제 요건에 따른 선별에 의한 전략에서의 비중이 높다. 반면, 미국은 ESG 통합투자전략의 비중이 높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회책임투자에도 유럽과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유럽은 ESG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 리스트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방식을 쓰며, 이 방식은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책임투자라도 수익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ESG 통합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챠트1] 유럽은 규범에 의한 선별, 미국은 ESG 통합투자



자료: G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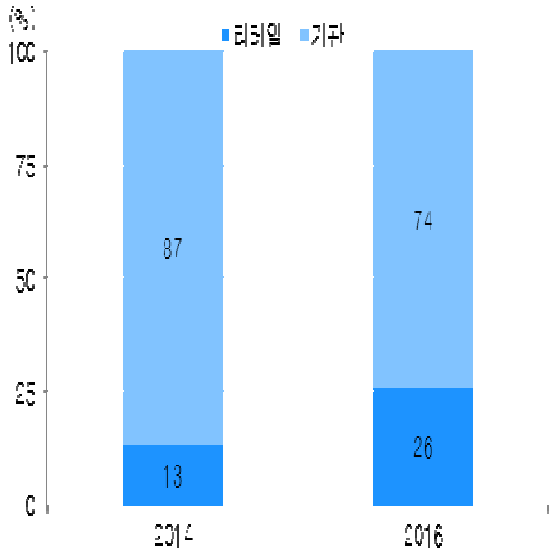
2. 해외의 사회책임투자 방식은 다양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을 같이 감안하기 때문에, 리테일보다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은 리테일 채널의 사회책임투자펀드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자산 중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7%에서 2016년 74%로 낮아졌다(유럽, 캐나다, 미국 대상). 미국은 사회책임투자자산의 투자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리테일에서 사회책임투자 관련 자산이 늘어나면서, 사회책임투자자산의 1/3이 리테일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해외에서 리테일에 팔리는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주식펀드, 혼합펀드, 채권펀드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국내주식펀드와 해외주식펀드 등 주식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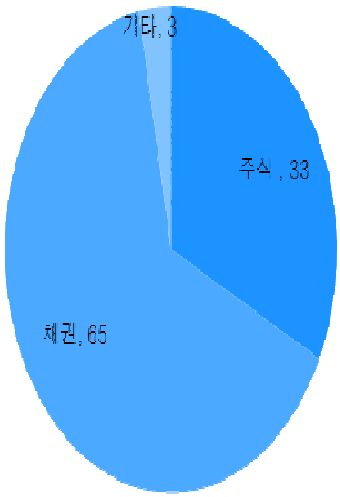
사회책임투자펀드의 대표적 지수로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가 있다. 1993년부터 성과를 MSCI All Country World Index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DJSI의 성과가 우수하지만, 2010년 이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이후 DJSI와 MSCI ACWI의 수익률은 각각 17.3%와 16.1%이다.

[챠트2] 글로벌 사회책임투자펀드의 74%는 기관



자료: G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챠트2] 글로벌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채권 65%, 주식 33% 등으로 구성



자료: G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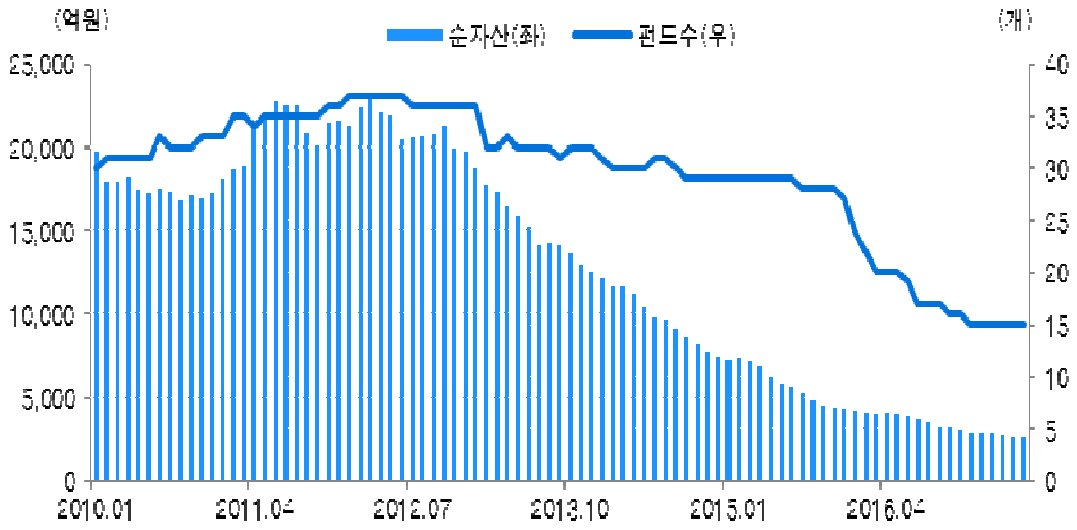
3. 쪼그라든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

2007~2008년 2조원을 넘어섰던 공모형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용규모는 2천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국내주식형 2623억원, 해외주식형 463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SRI지수가 대형주의 약세로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면서, 사회책임투자펀드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다.

사회책임투자펀드의 공모펀드 규모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책임투자 운용상 어려움 중의 하나로 꼽혀왔던 사회책임투자 전용 벤치마크를 도입하려는 대형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 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면, ESG 요소에 의한 종목 선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사회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에 의뢰하여 사회책임투자용 벤치마크를 개발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서스틴베스트와 사회책임투자용 벤치마크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투자 안프라가 개선되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챠트4]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 주식펀드는 급격히 감소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